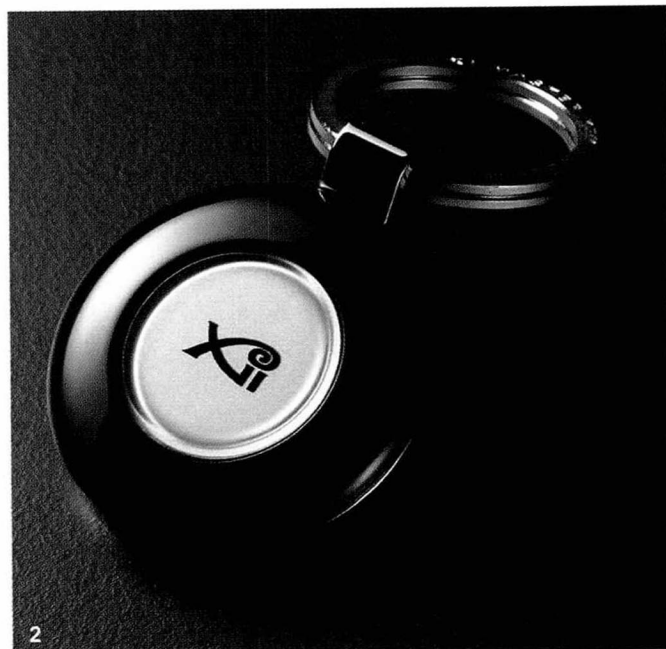


## 첨단 주거 혁명 진행 중 첨단과 웰빙이 만나다

최근 주거 문화의 흐름은 첨단 네트워크와 웰빙의 실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가지에 대한 양자 택일이 이전 무의미하고 있다. 첨단 주거 문화를 통해 보다 자연에 가까이 다가서려는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건설사들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알아보자.

에디터 | 하유정 · 자료 제공 | 삼성물산 건설부문, GS건설, 현대건설



2017년 8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차를 몰고 단 지 정문을 나서자마자 습관적으로 도로 위의 전광판을 주시한다. 시내는 물론 주변 도로의 교통 상황과 예상 소요 시간이 안내 되기 때문이다. 평소 다니던 도로가 사고로 정체를 빚고 있다는 정보에 우회로를 선택한 A씨는 어려움 없이 제시 시간에 서울 강남의 사무실에도 도착할 수 있었다. 사무실에 출근하자마자 인터넷 원격 제어 장치를 통해 집안 자동 환기 장치를 작동시킨다. 공상 과학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 주변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자연에 첨단을 입힌 주거 혁명이 진행 중인 것이다. 첨단과 자연의 조화는 건설 업계 아파트 전략의 핵심 화두다. 첨단 기술을 아파트와 접목해 보다 편리한 주거 공간을 창출하는 동시에 환경 친화적인 단지를 구현해낼 때 비로소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최근 '2007 래미안 스타일' 을 선보이며 첨단아

파트 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07 레미안 스타일'은 집을 둘러싼 생태(Eco), 자연 에너지(Energy), 감성 디자인(Emotion), 미래 기술(Emerging) 환경 등이 사람과 소통하며 공생하는 혁신적이고 새로운 주거 환경을 말한다. 자연과 에너지 환경을 주제로 지중열 시스템과 태양광 시스템, 수질 시스템과 쓰레기 이송 설비, 환기 시스템 등 레미안에 실제 적용 중이거나 개발 중인 기술들을 소개했다.

지중열 시스템은 일정 깊이 이하의 땅 속 온도가 1년 내내 15℃로 유지되는 점에 착안한 천연 에너지 냉난방 설비다. 이 장치를 이용하면 에어컨 실외기나 냉각탑 없이도 여름에는 실온보다 찬 공기를, 겨울에는 실온보다 더운 공기를 건물에 공급할 수 있다. 대구 레미안 달성에 시공 중이며, 용인 동천 레미안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태양광을 이용한 단지 내 벤치 조명과 난방 장치도 친환경 자연 에너지를 이용해 공용 시설 관리비를 절감해주는 레미안의 대표적인 에코 에너지(Eco-Energy) 시스템이다.

GS건설은 자사의 아파트 브랜드 자이(Xi)를 첨단 유비쿼터스를 향유할 수 있는 주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예로 '자이 키오스크'는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을 지향하는 제품으로 세대 내에서 이용하는 홈 네트워크 기능을 단지 내 공용 부분에서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한 제품이다. 또한 단지 소식, 인근 약도, 대중 교통 노선 안내 등 맞춤형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다.

'자이 마스터키'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현관 열쇠와 다양한 기능이 결합된 마스터키를 한층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지하 주차장의 비상 호출, 주차 위치 전송, 무인 택배 수령, 키오스크 작동의 기능을 갖췄다. 위급 상황 시의 비상 호출 기능과 주차 위치를 핸드폰의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는 서비스 등 입주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개발됐다. 자이 키오스크와 마스터키는 뛰어난 디자인을 인정받아 2006년 우수 산업 디자인으로 선정돼 굿 디자인(Good Design) 마크도 획득했다.

힐스테이트를 앞세운 현대건설 역시 첨단 주거를 핵심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2005년 말 분양된 김포 고촌 현대 힐스테이트의 경우 홈 게이트웨이를 통해 세대 내 각 방에서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첨단 기기까지 구축할 수 있도록 설계 중이다. 이와 함께 단지 내 어디서나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도 제공할 계획이다.

건설사들의 이러한 노력으로 아파트 입주자들은 집안에서 출퇴근용 대중 교통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날씨·대기 오염 등 환경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첨단과 자연은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다. 최첨단 주거 시스템은 자연 속에서도 도심 속 못지않은 편리한 생활을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㉔

1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자연과 에너지 환경을 주제로 선보인 지중열 시스템과 태양광 시스템. 2 최근 유행하고 있는 현관 열쇠와 다양한 기능이 결합된 '자이 마스터키'. 3 홈 네트워크 기능과 유비쿼터스 환경을 지향하는 '자이 키오스크'

